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어 등위 접속사 ‘and’의
한영 번역 연구



2012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 어 영 문 학 과

오 영 옥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어 등위접속사‘and’의
한영 번역 연구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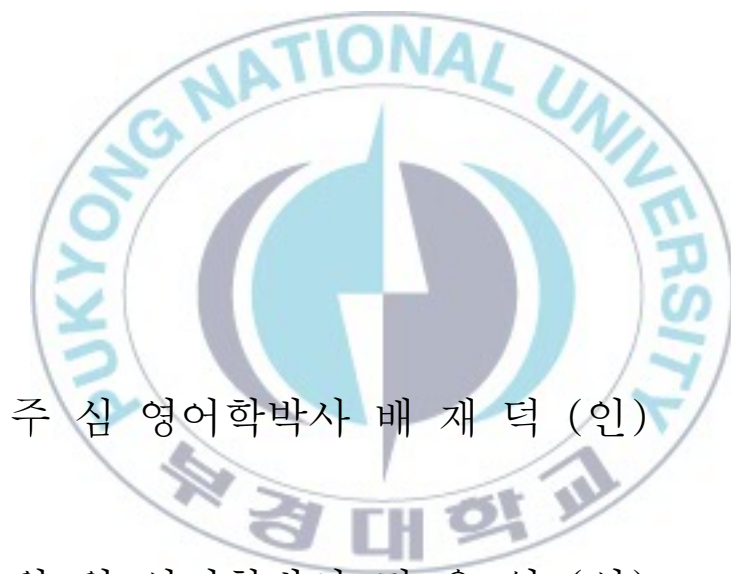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 어 영 문 학 과

오 영 욱

오영옥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2월 24일



주 심 영어학박사 배 재 덕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위 원 영어학박사 한 지 원 (인)

목 차

초록	iii
I . 서론	1
II . 이론적 배경	4
2.1 한국어의 접속 기능소	4
2.2 ‘and’의 의미적 함축	10
III . ‘and’의 한국어 대응 표현	14
3.1 영어 ‘and’의 한국어 대응 표현과 빈도	14
3.2 접속 기능소	16
3.2.1 접속 어미	17
3.2.2 접속 부사	26
3.2.3 접속 조사	30
3.3 번역 단위 전환	31
3.4 관계절	33
IV 결론	35
참고문헌	37

표 목 차

<표 1> 의미에 따른 접속 어미 분류	5
<표 2> 의미에 따른 접속 부사 분류	8
<표 3> 영어‘and’의 대응 표현과 빈도	15
<표 4> 영어 ‘and’의 한국어 대응 표현 중 접속 기능소의 하위 분류	17
<표 5> 영어 ‘and’의 한국어 대응 접속 어미의 의 관계에 따른 분류 및 빈도	18



A study on korean-English Translation
of the English Coordinate Conjunction ‘and’

Oh Young Ok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Korean translations of English coordinate conjunction ‘and’. The analysis of our Korean-English parallel corpus shows that ‘and’ constructions are translat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of Korean constructions: conjunction, translation shift, relativizer.

According to Quirk et al.(1990)'s definition, the English coordinate conjunction ‘and’ constructions have eight different meanings: sequent, consequence or result, contrast, concessive, condition, similar, addition, comment. There are also many kinds of the

meanings of Korean conjunctions. The meanings of some Korean conjunctions are related with 'and': sequent, addition, consequence or result, condition, contrast, com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meanings of English coordinate conjunction 'and' and some Korean conjunctions are strongly related with each other.



I . 서론

영어의 접속사는 단순히 단어, 구, 절 등을 등위 적으로 연결하는 형태상의 역할 이외에도 중요한 의미상의 역할이 있다. Halliday & Hasan(1976)과 Fraser(2004)는 문맥의 선행 부분과 후행 부분을 관계 의미에 따라 분류 하고 있다. 특히 등위 접속사 ‘and’는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다. 이처럼 등위 접속사가 순수한 등위 접속 기능 밖의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경우는 한국어의 등위 접속 형태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서정수 1994). 본 연구에서는 특히 다양한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and’를 살펴보겠다. 다음 예문에 나타나는 영어 ‘and’의 한국어 대응 표현을 보자.

(1) a. 보기 딱할 정도로 야위었고 혈색 또한 좋지 않았다.

(김원일 1990: 368)

b. he was miserably thin and his color was poor.

(Pickering 1997)

예문(1)은 한국어의 등위 접속 기능 형태인 ‘-고’가 영어 등위

접속사 ‘and’로 번역 되었다.

다음 예문은 한국어의 접속 부사어 ‘그런데’가 영어 ‘and’로 대응되어 나타난 경우이다.

(2) a. 너가 한번 그 친구를 만나봐야겠다. 그런데 만약 그
입에서[...]¹) (김원일 1990: 373)

b. Go see him. And If he says[...] (Pickering 1997)

예문(2)에서 ‘그런데’는 대립의 관계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but’이 아닌 ‘and’로 번역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한국어의 어떤 유형들이 영어 ‘and’로 번역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영 병렬 언어자료에서 한국어의 어떠한 형태들이 영어 ‘and’로 나타나는지 찾아 유형별로 분류하고, Quirk et al.(1990)의 ‘and’가 가질 수 있는 의미적 함축 분류에 따라서 ‘and’에 대응 되는 한국어의 접속 유형을 설명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한영 병렬 자료(parallel corpus)는 이 문열(1987)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하 영웅으로 약함)과 그 영역본 O'Rourke(1995)의 ‘Our Twisted Hero’(이하 Hero로 약함), 신경숙(1993)의 ‘풍금이 있던 자리’(이하 풍금으로 약함)와 그 영역본 Tennant(1998)의 ‘Where the

1) [...]는 자료의 간략화를 위해 필자가 추가하였음.

Harmonium was’(이하 Harmonium으로 약함) 그리고 김원
일(1990)의 ‘마음의 감옥’(이하 감옥으로 약함)과 그 영역본
Pickering(1997)의 ‘Prisons of the Heart’(이하 Prison으로
약함)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병렬 언어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어
의 어떤 유형들이 영어 ‘and’로 번역 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리
고 마지막 4장에서 본 연구 결과를 요약 한다.



Ⅱ. 이론적 배경

한국어에서 단어, 구, 절 또는 문장을 연결하는 요소인 접속 기능소와 영어 접속사 ‘and’의 의미적 기능을 각각 살펴보기로 하자.

2.1 한국어의 접속 기능소

첨가어인 한국어에서는 접속 표현이 접속 단위의 언어층위에 따라 세 개의 언어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접속 기능소라 한다. 접속 기능소에는 접속 어미, 접속 조사, 접속 부사가 있다(유혜령 2005).

첫째 접속 어미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어에서 접속 어미는 통사적 기능으로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결합하여 접속문을 만들고 의미적 기능으로는 결합된 두 문장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나타낸다. 즉 접속 어미의 의미적 기능은 통사적으로 결합된 두 절 사이의 의미관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어의 접속 어미는 그 수효가 많고 한 어미의 의미도 다양하여 체계적인 분류가 쉽지 않다.

분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정할 수 있다. 하나는 접속 어미가 가진 통사적 특성에 따른 분류고 다른 하나는 선행절과 후

행절의 의미 관계에 따른 분류 한다.

의미 관계를 따른 분류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윤평현(2005)의 분류를 따르겠다. 관계 의미에 따라 공통성이 있는 접속 어미를 모으면 한 의미 영역에 포함된다. 윤평현(2005)의 열두 분류²⁾ 중 ‘and’의 의미와 연결되는 접속 어미를 분류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의미에 따른 접속 어미 분류

접속 어미	보기
시간	-고, -서, -며
나열	-고, -며
인과	-서
전환	-다가
조건	-면
대립	-지만, -으나
상황	-는데

한국어에서 [표1]의 접속 어미가 쓰인 예를 살펴보자.

시간 관계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어미에는 ‘-고, -서, -며’가 있다.

(3) 남편이 죽고 아내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2) 접속 어미의 관계 의미에 따른 열두 분류에는 나열, 선택, 대립, 조건, 양보, 인과, 시간, 상황, 부가, 전환, 목적, 결과 관계 접속어미가 있다(윤평현 2005).

(4) 아기가 기어와서 엄마 곁에 눕는다.

(5) 영화는 달을 보며 속삭인다.

예문(3), (4), (5)은 선행절 동작과 후행절의 동작이 시간 관계로 연결 되어 있다.

나열 관계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어미는 ‘-고, -며’가 있다. ‘-고’의 경우는 시간의 의미도 함께 나타낸다.

(6) 언니는 키가 크고, 동생은 얼굴이 예쁘다.

(7) 아버지는 병석에 있으며, 어머니는 가출을 하였다.

예문(6)의 ‘고’와 예문(7)의 ‘며’는 각각 예문(3)과(5)와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 예문(3), (5)에서 시간의 의미로 사용된 ‘고’, ‘며’는 예문(6), (7)에서는 나열 관계 접속문이다.

인과 관계 의미 ‘-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간의 의미와 함께 인과의 의미도 나타낸다.

(8) 날것으로 먹어서 배탈이 났다.

예문(8)의 접속 어미 ‘서’는 인과 관계를 접속 어미로서 배탈이 난 원인이나 이유가 날것을 먹은 데 있음을 나타내고 있

다. 이는 예문(4)의 시간 관계를 표현하는 ‘서’와는 다른 의미 기능이다.

전환 관계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어미는 선행절의 동작이나 상태가 후행절에서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바뀌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가’이다.

(9) 아이가 우유를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예문(9)에서 아이의 동작이 우유를 마시는 것에서 잠이 드는 것으로 동작이 바뀌는 것을 접속 어미 ‘다가’로 나타낸다.

조건 관계 의미 접속 어미는 ‘-면’이다.

(10) 철수가 오면 나는 가겠다.

예문(10)의 ‘나는 가-’의 실현성 여부는 선행절 내용인 ‘철수가 오-’는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즉 철수가 오는 것은 내가 갈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된다.

대립 관계 접속 어미의 ‘-지만, -으나’는 내용상 서로 대립되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이어주는 접속 어미를 말한다.

(11) 영화는 부지런하지만 순희는 게으르다.

(12) 철수는 갔으나 영화는 가지 않았다.

예문(11)에서 ‘부지런’과 ‘게으른’은 서로 의미상 반대이고, 예문(12)도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상황 관계 접속 어미 ‘-는데’는 선행절에서 문맥적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행절의 설명이 이루어지게 하는 접속 어미이다.

(13) 벼룩시장을 오랜만에 갔는데, 쓸 만한 물건은 이제 나오지 않더군.

예문(13)은 선행절에 ‘벼룩시장’이라는 공간적 상황을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적 상황 속에서 후행절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접속 부사를 살펴보겠다. 앞의 접속 조사나 접속 어미가 의존 형태의 접속 기능소인 반면 접속 부사는 단어 형태로 문장을 연결하는 부사어이다. 접속 어미와 마찬가지로 접속 부사 또한 의미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접속 부사를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2]과 같다.

[표2] 의미에 따른 접속 부사 분류(서정수 1994)

접속 부사	보기
대립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

양보	그래도, 그렇더라도, 그런데도
조건	그러면, 그러하면, 그렇다면
인과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따라서
부가	그리고, 게다가

[표2]에 나타난 접속 부사의 예를 살펴보자.

(14) 나는 밤중에 그 집을 찾아 갔다. 그런데 그 여자를 만나지 못했다.

예문(14)의 ‘그런데’는 앞뒤 문장을 대립 관계로 이어 주는 접속 부사이다.

(15) 나는 밥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너무 배가 부르다.

예문(15)은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부르다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 ‘그래서’가 사용된 문장이다.

셋째 접속 조사 ‘와/과’는 주로 명사구를 잇는 구실을 한다. 이것은 절 또는 구를 잇는 접속 어미와 더불어 중요한 한국어의 접속 기능소이다.

- (16) a. 선생과 학생이 문제를 푼다.
b. 너와 나
c. *그이는 하느님을 믿과 열심히 살아간다.

(16b)에서는 접속 조사 ‘와/과’로 이어진 문장이 자연스러운 반면 (16c)는 이상하다. 이는 접속 조사 ‘와/과’는 동사구에서 는 사용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2 ‘and’의 의미적 함축

Quirk et al(2007).은 ‘and’가 가질 수 있는 의미적 함축 (semantic implication)을 다음의 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and’가 갖는 의미적 연관성은 부사를 첨가해 보면 더욱 명확 해 지는 경우가 많다.

A. 결과(consequence or result)

후행절은 선행절의 결과(consequence or result)를 나타낸다. 즉 선행절이 후행절에서 일어나게 하는 사건의 환경을 나타낸다.

- (17) He heard an explosion and he (therefore) phoned the police.

예문(17)의 ‘and’는 폭발음을 들었기 때문에 경찰에게 전화를 했다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사용되었다. 이는 ‘therefore’를 넣어서 보면 더욱 자연스럽게 그 의미가 드러난다.

B. 시간의 순서(sequent)

선행절이 후행절에 비해 시간적으로 앞서 있지만, 인과 관계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18) I washed the dishes and (then) I dried them.

예문(18)는 앞문장의 행위 ‘washed the dishes’가 뒷문장의 ‘dried them’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어야 한다.

C. 대조(contrast)

후행절은 대조의 의미를 이끌어 낸다.

(19) Peter is secretive and (in contrast) David is open.

예문(19)의 ‘secretive’와 ‘open’은 서로 대조되는 어휘로 Peter의 성격이 비밀스러운 것과는 대조적으로 David는 솔직함을 ‘and’를 이용하여 연결 한다. 삽입 되어있는 ‘in contrast’를 넣어 보면 대조의 의미가 더 잘 나타난다. ‘and’가 ‘대조’의 의미일 때는 ‘but’으로 대체될 수 있다.

D. 양보(concessive)

후행절은 선행절의 관점에서 놀라움으로 느껴지고, 따라서 선행절이 양보적 힘을 갖는다.

(20) a. She tried hard and (yet) she failed.

b. She tried hard but she failed.

예문(20)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양보적 의미를 'and'가 가진다. 이와 같이 'and'가 '양보'의 의미일 경우 예문 (19)의 '대조'와 같이 예문 (20b)에서 보듯이 'but'으로 대체 될 수 있다.

E. 조건(condition)

선행절은 후행절의 조건을 나타낸다.

(21) Give me some money and (then) I'll do the shopping.

예문(21)는 돈을 주면 쇼핑을 하겠다는 의미로 'and'가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다.

F. 유사성(similar)

후행절은 선행절과 유사한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된다.

(22) A trade agreement should be no problem, and

(similarly) a cultural exchange could be easily arranged.

예문(22)은 무역 협정이 문제없고, 문화 교류도 쉽게 해결 될 수 있다는 유사한 내용으로 연결 된다.

G. 부가(addition)

후행절은 선행절에 대한 단순한 부가이다.

(23) He has long hair and (also) he wears jeans.

예문(23)는 그가 ‘긴 머리’이고 또한 청바지를 입고 있다는 단순한 부가를 나타낸다.

H. 논평(comment or explanation)

후행절이 선행절에 대한 논평 또는 추가적인 설명이다.

(24) They disliked John — and that's not surprising in view of his behavior.

예문(24)에서 ‘and’는 그들이 John을 싫어하는 것에 대해 놀랍지 않다는 논평을 연결 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어의 등위 접속사 ‘and’가 가질 수 있는 의미적 함축 8가지 - 결과, 시간적 순서, 대조, 양보, 조건, 유사성, 단순 부가, 논평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and’의 의미적

함축이 한국어의 접속 형태가 ‘and’로 번역될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다음 3장에서 알아보려고 한다.

Ⅲ. ‘and’의 한국어 대응 표현

본 장에서는 영어의 ‘and’로 번역된 한국어 원 문장이 한국어에서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한영 병렬 언어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3.1 영어 ‘and’의 한국어 대응 표현

한국어의 문장이 ‘and’로 번역되는 경우는 접속 기능소, 번역 단위 전환, 관계절이 ‘and’를 사용한 등위절로 나타난다.

먼저 예문(25)은 접속 기능소가 ‘and’로 번역된 경우이다.

(25) a. 벌떡 일어나 앉으며, 돌연한 침입자를 쏘아보았다.

(감옥: 375)

b. He jerked upright and glared at the unexpected intruder. (Prison)

다음 예문(26)은 번역시에 ‘부부’라는 하나의 단어가 ‘and’로

연결된 구(phrase)로 단위가 전환되어 번역되었고, 예문(27)은 관계절이 ‘and’로 번역된 형태이다.

(26) a. 부부 (풍금: 12)

b. husband and wife (Harmonium)

(27) a. 기껏 나만이 가진 고급한 학용품 따위였다. (영웅: 283)

b. these were of high quality and I was the only one who had them. (Hero)

위의 접속 기능소, 번역 단위 전환, 관계절의 세 가지로 분류한 유형별 빈도를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영어 ‘and’의 대응 표현과 빈도

접속 기능소	번역 단위 전환	관계절	계
130(86.7%)	13(8.7%)	7(4.6%)	150(100%)

위의 예문 (25)와 같이 한국어의 접속 기능소가 영어의 ‘and’로 번역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86.7%). 그 다음으로 예문(26)처럼 번역 단위가 전환되어 나타났고(8.7%), 마지막으로 예문(27)은 관계절이 ‘and’를 사용한 등위절로 번역된 경우였다

(4.6%). 아래에서는 ‘and’의 한국어 대응 표현으로 나타난 접속 기능소, 번역 단위 전환, 관계절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접속 기능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접속 기능소는 낱말, 구나 절 또는 문장들을 서로 연결하는 요소들을 가리킨다. 아래에서 접속 기능소의 예를 살펴보자.

- (28) a. 꼬르륵 소리가 났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 듯 했어요. (풍금:18)
b. A gurgling sound came from his stomach and his voice was choked in tears. (Harmonium)
- (29) a. 열두 살은 아직도 아이의 단순함에 지배되기 쉬운 나이지만, 그리고 아직은 생생한 낮의 기억들이 은근히 의식의 굴절과 마비를 강요하고 있지만[...] (영웅: 289)
b. Although at twelve it's still easy enough to treat everything with the innocence of a child, and although the vivid memories of day's events

still caused some quirks, paralysis even,
consciousness[...] (Hero)

(30) a. 존경과 복종 (영웅: 285)

b. respect and obedience (Hero)

예문(28)은 접속 어미, (29)는 접속 부사, (30)은 접속 조사가 ‘and’의 대응 표현으로 나타난 경우다. 이들 접속 기능소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영어 ‘and’의 한국어 대응 표현 중 접속 기능소의 하위 분류

어미	조사	부사	계
85(65.4%)	41(31.5%)	4(3.1%)	130(100%)

접속 기능소에서 접속 어미가 가장 많고(65.4%), 다음으로 접속 조사 이며(31.5%), 접속 부사는 빈도수가 가장 낮게 발견되었다(3.1%).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3.2.1 접속 어미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의미 관계에 따

라 윤평현(2005)의 분류를 따르겠다. 접속 어미 82개(65.4%)를 관계 의미에 따라 접속 어미를 분류 하면 다음[표5]와 같다.

[표5] 영어 ‘and’의 한국어 대응접속 어미의 의미 관계에 따른 분류 및 빈도

시간	나열	인과	전환	조건	대립	상황	계
41 (48.2%)	31 (36.5%)	6 (7.1%)	3 (3.6%)	2 (2.4%)	1 (1.1%)	1 (1.1%)	85 (100%)

접속 어미 중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총 85개 중 41개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48.2%). 다음으로 나열 31(36.5%)개, 인과 6(7.1%)개이고, 나머지 전환3(3.6%)개, 조건2개(2.4%), 대립1개(1.1%), 상황 1개(1.1)로 사용 빈도수로 나타났다.

여기서 발견된 빈도에 따라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A. 시간

시간 관계 접속 어미는 ‘-고, -서, -며’는 선행절이 후행절에 시간상으로 앞서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and’로 번역된 경우는 41개(48.2%)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 어미들은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어색해진다.

(31) a. 저는 그 여자의 화사함에 이끌려 고무신을 껴신고,
그 여자를 뒤세우고는 텃밭으로 난 샛문을 향했습
니다. (풍금: 16)

b. I poked my toes into my shoes and walked toward
the small gate that led to the vegetable plot as
she followed. (Harmonium)

예문(31)은 시간을 나타내는 어미 ‘-고’가 ‘and’의 대응 표현으
로 나타난 경우로 ‘고무신을 신는’ 동작이 ‘샛문을 향하는’ 동
작 보다 앞서 있다. 즉 선행절과 후행절의 동작 이 시간 순
서로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절과 후행절의 문장이 순서
가 바뀌게 되면 비문이 된다.

아래의 예문 ‘-며’도 시간의 순서를 나타낸다.

(32) a. 아이들이 움찔하며 물러서는데[...] (영웅: 284)

b. The children flinched and stepped back abruptly.
(Hero)

예문(32)도 ‘아이들이 움찔한’동작 다음 ‘물러난’동작이 따르는
시간의 순서를 나타낸다. 이러한 시간 관계 접속 어미 ‘-고,
-며’가 영어 ‘and’의 대응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and’가 시간(sequent)의 의미적 함축을 내포하

고 있기 때문이다.

B. 나열

나열 접속 어미 ‘-고’와 ‘-며’가 ‘and’로 번역되어 나타난 경우는 31개(36.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접속 어미 ‘-고’, ‘-며’는 한국어에서 시간과 나열의 관계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다. 나열의 의미일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의 연결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시간의 의미로 쓰여진 경우에는 순서가 바뀌면 앞뒤 문맥이 어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영어 ‘and’도 접속 순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접속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가 바뀌지 않는 ‘대칭적(symmetric) and’와 순서가 바뀌면 달라지거나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비대칭적(asymmetric) and’로 구분 하고 있다 (Lakoff 1971). ‘대칭적 and’는 ‘나열’의 의미를 나타내고, ‘비대칭적 and’는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예문(33), (34)는 나열 관계 접속 어미이다.

(33) a. 무언가 대단히 높고 귀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는, [...] (영웅: 285)

b. It was as if he were using the name of someone
very great and noble, [...] (Hero)

(34) a. 생강 껍질도 벗겨주고, 마늘도 짓쪼개주었으며, 우물에서 소금에 절인 배추를 씻을 때는 두레박질도 해주었지요. (풍금: 16)

b. I pared the ginger, helped to pound the garlic and when she was rinsing out the salted cabbage by the well, I even drew water for her. (Harmonium)

위의 예문(31)과 (32)은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바뀔 뿐 아니라 어색한 문장이 된다. 예문(31)에서 앞뒤 문장을 바꾸어 보면 여자를 뒤세우고 나서 내가 고무신을 꿰신 게 된다. 이는 내가 고무신을 신고 여자와 함께 샛문을 향했다는 원래 문장과는 다른 의미가 된다. 예문(32)도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시간차가 크진 않지만 순서가 바뀔 경우 약간의 의미 격차가 생긴다. 물러서고 난 후 움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움찔하여 놀란 후에 물러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예문(33), (34)은 단순히 나열이기 때문에 앞뒤 문장의 순서와 의미의 차이는 없다. 예문(33)의 ‘높고 귀한’을 ‘귀하고 높은’으로 표현해도 의미 격차는 없다. 이는 예문(34)도 마찬가지다. 나열 관계 접속 어미 ‘-고, -며’는 ‘and’의 단순 부가(addition)와 의미적으로 연결 되어 나타나는 영어의 등위 접속사 ‘and’의 대응 표현이다.

C. 인과

‘-서’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까닭이나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 어미로 ‘and’로 6개(7.1%)가 번역 되었다. 인과 관계 접속 어미 ‘-서’는 후행절 내용의 실현에 앞서 선행절 내용이 원인이나 이유가 되게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은 접속 어미 ‘-서’는 예문(32)에서처럼 시간 관계 의미도 함께 나타낸다.

- (35) a. 내 옆 분단의 두 아이가 무슨 일인가로 싸워서 한
아이가 코피가 난 때였다. (영웅: 288)
- b. when two boys in the section of the class next to
me got into a fight and one of them got a bloody
nose. (Hero)
- (36) a. 마을로 들어오는 길은, 막 봄이 와서, 여기저기 참
아름다웠습니다. (풍금:15)
- b. The road entering the village. Spring had just
come, and here and there, it was really beautiful
(Harmonium)

예문(35)는 코피가 난 원인이 싸움이고, 예문(36)도 여기저기 아름다운 이유가 봄이 왔기 때문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위의 두 예문(35), (36)은 선행절이 후행절의 원인을 표현한다.

접속 어미 ‘-서’는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과 (consequence or result)를 의미하는 ‘and’와 의미적 연관성을 가진다.

D. 전환

전환 관계 접속 어미 ‘-다가’는 선행절의 동작이나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후행절에서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바뀌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and’로 번역된 경우는 3개(3.6%)였다.

- (37) a. 큰 오빠는 나란히 줄 서 있는 우리 셋 앞을 서성이
다가 어느 순간 제 앞에 우뚝 멈췄어요. (풍금: 17)
b. he began to pace up and down before us and
suddenly came to a dead stop in front of me. (Harmonium)
- (38) a. 쉬는 시간에는 저만치서 힐끗힐끗 훑쳐보기만 하다
가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몇 명 몰려와[...] (영웅: 283)
b. At the break they stood at a distance stealing quick glances across, and when finally at lunch time a few boys did gather around,[...] (Hero)

예문(37)은 ‘서성이던’동작이 ‘우뚝 멈추는’다른 동작으로 바뀌었고, 예문(38)도 ‘흠쳐보기만 하는’동작이 ‘몰려오는’동작으로 바뀌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태가 바뀔을 알 수 있다. 특히 예문(38)의 ‘점심시간이 되어서야’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환 관계 접속 어미 ‘-다가’는 시간 관계 접속 어미와는 조금 다르지만 ‘and’의 시간(sequent)의 의미와 대응 되는 표현으로 여겨진다.

E. 조건

조건 관계 접속 어미는 선행절 내용이 후행절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건이 되도록 선행절과 후행절을 이어주는 접속 어미다. 이런 조건 관계 접속 어미 ‘-면’은 ‘and’로 2개(2.4%)가 번역되어 나타났다.

(39) a. 오늘부터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 국물도 없을
줄 알아. (풍금: 17)

b. from today, you will obey me, and if you don't
I'll give you hell. (Harmonium)

예문(39)의 ‘-면’은 후행절의 실현에 대한 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and’의 조건(condition)과 대응 되는 접속 어미다.

F. 대립

대립 관계 접속 어미 ‘-나’는 내용상 서로 대립되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이어 주는 접속 어미로 ‘and’가 1개(1.1%)만 번역 되어 나타났다.

(40) a.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나 나는 하마터면 일어날 뻔했다. (영웅: 284)

b. he didn't move a finger and yet I found myself almost getting up. (Hero)

예문(40)은 ‘-나’라는 대립 되는 분명한 뜻을 ‘and’에게 주기 위해 그 뒤에 ‘yet’을 붙여 놓았다. 대립 관계 의미인 ‘-나’는 ‘and’가 가지는 양보적(concessive)의미와 대응되는 접속 어미이다.

G. 상황

상황 관계 접속 어미 ‘-는데’는 선행절에서 문맥적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후행절의 설명이 이루어지게 하는 접속 어미를 말한다. 상황 관계 접속 어미 ‘-는데’가 ‘and’로 번역된 경우는 1개(1.1%)로 나타났다.

(41) a. 시누대가 있던 자리에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몇 년

이 지난 어느 봄에 그 아스팔트를 뚫고 죽순이 솟았
다더니,[...] (풍금: 14)

- b. I had heard that a patch of bamboos had been
asphalted over and one spring few years later, a
bamboo shoot poked out through the thick crust
of asphalt. (Harmonium)

예문(41)을 보면 시누대가 깔려있는 곳에는 죽순이 솟아날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죽순이 솟
아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
시하는 접속 어미 ‘-는데’는 ‘and’가 가지는 의미적 함축 중에
서 논평(comment)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2.2 접속 부사

접속 부사는 단어 형태의 접속 기능소로 문장 연결 부사어이
다. 즉 접속 부사어는 앞 문장을 의미적으로 이어 받아 뒷 문
장을 연결 하는 것이다.(서정수 1994)

총85개의 접속 기능소 중 접속 부사가 ‘and’로 번역된 것은 4
개(3.1%)로, ‘그리고’가 2개, ‘그런데’와 ‘그래서’가 각각 1개씩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접속 부사도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접
속 어미와 같이 의미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42) a. 열두 살은 아직도 아이의 단순함에 지배되기 쉬운 나
이지만, 그리고 아직은 생생한 낮의 기억들이 은근히
의식의 굴절과 미비를 강요하고 있었지만,[...] (영
웅: 289)

b. Although at twelve it's still easy enough to
treat everything with the innocence of a child
and although the vivid memories of the day's
events still caused some quirks, paralysis even
consciousness,[...] (Hero)

예문(42)의 ‘그리고’는 ‘부가’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and’의
부가(addition)와 그 의미가 같다.

다음 예문은 대립 관계 접속 부사 ‘그런데’이다.

(43) a. 너가 한번 그 친구를 만나 봐야겠다. 그런데 만약 그
입에서[...] (감옥: 373)

b. Go see him. And If he says [...] (Prison)

예문(43)의 ‘그런데’는 대립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어이다. 일
반적으로 국어에서 ‘그런데’는 ‘그러나’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약한 대립 현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완전히 상반되는 두

문장을 연결하거나 대립의 의미를 한층 강하게 나타내고자 할 때는 ‘그러나’를 쓴다. 단지 그 보다 약한 대립 관계를 나타내거나 대립 관계가 두드러지지 않게 할 때는 위의 예문(43)처럼 ‘그런데’가 알맞다. 이처럼 대립의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 ‘그런데’는 ‘and’가 가지는 ‘대조’와 그 의미 기능이 연결된다. 하지만 ‘그런데’가 ‘and’로 번역되는 경우는 전체 150개의 언어 자료 중 1개만 발견된 것으로 보아 그 빈도수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44), (45)를 살펴보자.

(44) a. 내가 아는 엄석대의 잘못을 모두 썼다. 그런데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은 아이들이었다. (영웅: 307)

b. I wrote down all his misdeeds that I knew about.
However, the boys as always were unpredictable.
(Hero)

(45) a. 그 곁에서 몸을 비꼬며 가수 흉내를 내는 녀석에다 물구나무서기와 공중제비를 번갈아 하며 주위를 돌던 녀석.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일은 그 오후 갑자기 전보다 갑절이나 내게 은근해진 석대의 태도였다.
(영웅: 329)

b. Beside them there was a boy imitating a singer

and another boy circling the area doing a series of handstands and somersaults. But the extraordinary thing was Sokdae's attitude; he was twice as friendly as formerly. (Hero)

예문(44)는 ‘그런데’가 ‘however’로, (45)는 ‘but’으로 나타난다. 병렬 언어 자료에서 발견된 8개의 ‘그런데’중 4개가 ‘however’이고, 2개가 ‘but’으로 표현 되며 1개만 ‘and’로 번역 되었다. 예문(44),(45)처럼 대립 관계 접속 부사 ‘그런데’는 영어로 표현 될 때 ‘and’보다는 대립을 나타내는 영어 접속어 ‘however’과 ‘but’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예문은 인과 관계의 접속 부사 ‘그래서’이다.

(46) a. 어쨌면 그런 싸움이야말로 우리 살이가 흔히 빠지게 되는 어떤 상태이고, 그래서 실은 아직도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느낌인지도 모른다. (영웅: 281)

b. Somehow in our lives we seem to get into fights like this all the time, and perhaps I get this feeling because to this day I've never really extricated my self. (Hero)

예문(46)의 그래서는 원인/결과를 의미하는 접속 부사이다. 예문(46)을 보면 ‘그런 싸움이 우리가 흔히 빠지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인과 관계 접속 부사 ‘그래서’는 결과(consequence or result)를 의미 하는 ‘and’와 같은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

3.2.3 접속 조사

접속 조사는 한국어의 대등 접속 형태 중 주로 단어가 나란히 접속하거나 나열하는 구실을 하고 있는 ‘와/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접속 조사가 ‘and’로 번역된 경우는 총 130개의 접속 기능소 중에서 41개(31.5%)가 발견 되었다.

(47) a. 존경과 복종 (영웅: 285)

b. respect and obedience (Hero)

(48) a. 불합리와 폭력 (영웅: 289)

b. irrationality and violence (Hero)

(49) a. 어쩔 줄 모르고 손을 맞비비고 있는 그 여자와

뽀끔뽀끔 담배 연기를 내뿜는 아버지를 (풍금: 17)

b. the woman, at her wit's end, rubbing her hands,

and our father puffing out cigarette smoke,[...]
(Hero)

위의 예문(47)~(49)에서 볼 수 있듯이 접속 조사는 명사를 연결 한다.

3.3 번역 단위 전환

번역전환(translation shift)이란 원천언어와 목표언어의 언어체계가 서로 다를 때 번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법적인 변화로 층위전환(level shift)과 범주전환(category shift) 두 가지가 있다(Catford 1965). 본 논문에서는 번역 할 때 범주가 바뀌는 범주전환의 4가지 경우³⁾ 중 하나인 단위전환(unit shift)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단위전환은 번역 될 때 단위가 전환되는 것으로, 여기서 단위란 형태소(morpheme), 단어(word), 구(phrase), 절(clause), 문장(sentence), 단락(paragraph)을 지칭한다.

본 논문에서 원천언어인 한국어에서 목표언어인 영어로 번역 될 때 단위가 전환된 경우는 총 150개 중에서 13개(8.7%)로 발견 되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3) 범주 전환: 구조전환(structure shift), 부류전환(class shift), 단위전환(unit shift), 체계 내 전환(intra-system shift).

(50) a. 부부 (풍금: 12)

b. husband and wife (Harmonium)

(51) a. 수저 (풍금: 17)

b. spoons and chopsticks (Harmonium)

(52) a. 강박한 (풍금: 15)

b. tough and irascible (Harmonium)

예문(50),(51)는 ‘부부’, ‘수저’라는 단어(word)를 ‘and’를 사용하여 구(phrase)로 단위를 전환하여 번역 하였고, 예문(52)의 ‘강박한’은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로 하나의 단어이다. 이를 영어의 형용사 ‘tough’와 ‘irascible’를 ‘and’로 연결하여 구로 번역 하였다.

다음 예문은 한국어 부사어인 하나의 단어를 절(clause)로 단위를 전환하여 번역 한 것이다.

(53) a. 어느덧 수 공작새는 다 자라 짝짓기를 할 만큼 되었다. (풍금:11)

b. Time passed and the cock grew old enough to find a mate. (Harmonium)

예문(53)에서는 단어 ‘어느덧’을 ‘Time passed’절로 번역하여 ‘and’로 후행절과 연결되는 등위절로 번역하였다.

3.4 관계절

한영 병렬 자료에서 한국어의 관계절이 영어의 ‘and’로 번역된 경우는 총150개 중 7개(4.6%)이다.

- (54) a. 손수건으로 눈을 훔치던 아내가 문득 생각했는지
(감옥: 369)
- b. My wife dabbed her eyes with a handkerchief and then seemed to remember something. (Prison)

예문(54a)의 ‘손수건으로 눈을 훔치던’이 ‘아내’를 수식하는 관계절로 표현된 문장이 예문(54b)에서는 ‘나의 아내는 눈물을 훔쳤다’와 ‘뭔가 기억난 것처럼 보였다’라는 두 문장을 ‘and’로 연결하여 등위절로 나타내고 있다.

아래의 예문(55)을 살펴보자.

- (55) a. 마을을 단 한번 벗어나본 적이 없는 어린 저는[...]
(풍금: 15)
- b. I was young and had never once been outside the

village. (Harmonium)

예문(55a)의 ‘마을을 단 한번 벗어나본 적이 없는 어린 저’를 번역한 예문(55b)를 보면 ‘나는 어렸고, 한 번도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라고 하여 ‘and’를 이용한 등위절로 번역 하였다. 이렇게 한국어 관계절이 영어 ‘and’에 대응될 수 있는 이유는 양인석(1972:226)의 주장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양인석(1972:226)은 한국어에서 한정적/비한정적 관계절이 구분된다고 보고, 한국어의 비한정적 관계절이 접속문 형식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한국어에서 비한정적 관계절이 영어에서처럼 구문론적인 뚜렷한 표지는 없지만 실제 면에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일부 접속문과 대응된다고 하였다. 또한 Quirk et al(1985:1258)에 따르면 영어에서도 비한정적 관계절은 대등 접속과 의미적으로 매우 비슷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로 보아 관계절은 원래 접속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관계절이 영어의 등위 접속사인 ‘and’로 번역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 본 영어 ‘and’에 대응되는 한국어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난다. 한국어의 접속 기능소가 ‘and’의 대응 표현으로 130개(86.7%) 발견되었고, 번역단위가 전환되면서 ‘and’가 추가되어 번역된 경우가 13개(8.7%), 한국어의 관계절이 ‘and’로 연결되어 등위절로 나타난 것이 7개(4.6%)이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국어의 ‘and’의 대응 표현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접속 기능소(86.7%), 둘째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체계가 서로 달라서 번역 과정에서 단위가 전환되어 표현되는 번역 단위 전환(8.7%),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관계절이(4.6%) ‘and’로 나타났다.

한국어의 접속 기능소에는 접속 어미, 접속 부사, 접속 어미가 있다. 이들 접속 기능소는 관계 의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 관계는 Quirk et al.에 따른 영어 ‘and’가 가지는 의미 속성과도 연결된다.

영어 등위 접속사 ‘and’는 그 의미에 따라 결과(consequence or result), 시간(sequent), 대조(contrast), 양보(concessive), 조건(condition), 부가(addition), 논평(comment)으로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영어 ‘and’의 의미와 한국어의 접속 기능소가 의미적으로 어떻게 대응되는지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로 접속 기능소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어미 ‘-고, -서, -며’와 전환 관계 의미인 ‘-다가’는 ‘and’의 시간(sequent)과 대응된다. 둘째 나열 관계 어미 ‘-고, -며’와 부사 ‘그리고’는 ‘and’의 부가(addition)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접속 조사인 ‘와/과’ 와도 그 의미가 같다. 셋째 인과 관계 어미 ‘-서’

와 부사 ‘그래서’는 ‘and’의 결과(consequence or result)의미와 대응된다. 넷째 상황 관계 어미 ‘-는데’와 ‘and’의 논평(comment) 이 같은 의미 기능을 가진다. 다섯째 대립 관계 어미 ‘-나’는 ‘and’의 양보(concessive)의미를 지니고, 여섯째 대립 의미 부사인 ‘그런데’는 ‘and’의 대조(contrast)와 유사한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조건 관계 어미 ‘-면’은 ‘and’의 조건(condition)과 의미가 대응된다.

영어 ‘and’로 번역시 대응되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한국어의 접속 기능소 - 접속 어미, 접속 부사, 접속 조사가 가지는 의미는 ‘and’가 가지는 의미 속성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and’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로 인하여 한국어가 영어 ‘and’로 번역될 때 그 대응되는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영 병렬언어자료

- 김원일. 1998. 마음의 감옥. 「한국3대 문학상 수상 소설집」. 서울: 도서출판 가람기획.
- 신경숙. 1993. 풍금이 있던 자리. 「풍금이 있던 자리」.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이문열. 1987.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중단편집」. 서울: 도서출판 둥지.
- Pickering, J. 1997. Prison of the Heart.
<<http://www.sogang.ac.kr/~anthony/klt/97wint/kimwonil.htm>>
- O'Rourke, K. 1998. Our Twisted Hero. Seoul: Minumsa Publishing Company.
- Tennant, A. M. 1998. Where the Harmonium Was.
<<http://www.sogang.ac.kr/~anthony/klt/98wint/shinkyongsuk.htm>>.

참고문헌

- 김은일. 2011. 2011특별학회 논문집, 지금 영어 영문학은 어

- 디에 있는가? 영어 영문학의 최근 연구 동향. 「새한 영어 영문학회」. 173-193
- 서정수. 1994. 「국어 문법」. 서울: 뿌리 깊은 나무.
- 양인석. 1972. *Korean Syntax: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서울: 백합 출판사.
- 유혜령. 2005. 연결어미 접속 기능에 대하여. 「한국 문법 교육학회」. 13: 87-105.
- 윤평현. 2005. 「현대국어 접속 어미 연구」.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Catford, J. C. 1965.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London: University Press.
- Fraser, B. 2004. An Account of Discourse Markers. In Garcés, P., Gómez, R., Fernandez, L. and M. Padilla(eds.), *Current Trends in Intercultural, Cognitive and Social Pragmatics*. Sevilla: Universidad de Sevilla, 13-34.
- Hallida, M. and R. Hasan.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Lakoff, R. 1971. 'If's, And's, and But's about Conjunction' in Fillmore & Langendoen. (eds.)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14-149.

Quirk, R., S. Greenbaum. 1990.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Group Ltd.

